

偶像 問題에 關한 理論과 實際 (六)

맑스主義者의 一顧를 要함

權九玄

한 社會나 한 團體의 所謂 有功者라 하여 그의 死를 弔함에 社會的 또는 團體的의 名目으로써 行할 理由가 무엇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名聲希求者들의 野習이 안이면 猛獸를 征服한 者에게 拜跪와 屈從으로써 感謝를 表하는 原始人들의 그것과 가튼 愚學라 안이 할 수 없는 것이다.

既述한 바와 如히 人類의 文化라는 것은 決코 只今까지의 所謂 史家들이 記錄하여 노흔 特潮된 幾個人-英雄, 天才, 偉人-의 功勳이 안인 것을 우리는 記憶하여야 한다. 時代的, 社會的 大潮流의 推移를 幾個 小數人의 名聲로써 說明한다는 것은 마치 戰爭의 勝敗를 一個 武將의 一勇으로써 結論하며 戰亡한 無名 兵卒의 巨大한 數字를 除外함과 다름이 없는 無名 大衆에 對한 侮辱이란 天分은 個人的 屬性이 아니라 人類의 屬性이며, 그 發揮한 天分은 實 人類의 天分이라 하여 歡喜할지언정 一個人에게 特殊한 價値를 賦與할 必要는 없는 것이요, 더욱이 偶像視하며 敬拜할 아무런 條件도 없는 것이다.

만일 個人的 卓越을 人類의 屬性으로부터 分離하여 一個人에게 特別한 敬拜를 드린다면 그 反面에는 非卓越 或은 그 以下를 侮辱하지 안하면 안될 論理的 過誤를 犯할 것이요, 또 여기에는 必然的으로 權威와 服從의 差別이 發生하고 말 것도 論理上 엇지할 수 없는 事實이다. 그러나 平凡이나 그 理想 愚稚를 人間的으로 侮蔑할 수 없는이만치 卓越이나 天分에 對하여서도 敬拜할 理由는 實로 없는 것이다.

勞働層과 知識層을 人間的으로 差別할 理由가 어디 있느냐? 孫文이나 一 無名 三民主義者間에 人間的 價値의 差異가 있다하면 그것은 分明 英雄主義乃至 天才主義의 思想인 同時에 偶像論者의 觀念이 안이면 안이 된다.

眞正한 意味의 解放運動은 個人的 價値를 人類意識에 轉換시키는 卽 個人 氏名의 否定을 根本 基調로 하지 안하면 안이 되는 것이다. 그러치 안하면

언제나 既成觀念의 奴隸가 됨을 免치 못할 것이니 이 點에 關하여 맑스主義
者는 한 번 더 考慮할 必要가 잇을 줄 안다. (쑈)